# 광주 천정배·전북 정동영·· 野 재편 손잡나

### 내년 총선 연대 관측 … 野 일부 인사 탈당설도 10월 기초단체장·의원 재보선 결과가 분수령

4·29 재보선 패배 후 중국으로 떠났던 정동영 전 의원이 최근 귀국, 고향인 전북 순창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 남 정치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야권 재편론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호남 의 북쪽에는 정 전 의원이, 남쪽에는 천정 배 의원이 진지를 구축하면서 새정치민주 연합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순 중국에서 귀국한 정 전 의 원은 현재 순창에 있는 지인의 씨감자농 장에 머물면서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5 일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국민모임'과 사실상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권 에서는 그가 내년 총선에 전북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전북 출마 명 분이 약하지만 읍소전략으로 나간다면 정

새정치 문재인-이종걸

광주서 당 화합 다져

같이하며 당의 결속과 화합을 약속했다.

우당 선생은 이 원내대표의 조부다.

문 대표는 관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서 "이 분들의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정신을 우리 당이 이어가겠다는 다짐 을 했다"고 강조한 뒤, 후속 당직 인선에 대

해서는 "여유를 갖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이 원내대표도 전시회를 둘러보며 문 대표에게 직접 사진을 소개하고 도록을 펼 쳐 독립운동사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전시회장인 광주학생독립운

동기념회관내에 모셔진 박종식 선생 등 독

립운동가 영정에 헌화, 묵념했다. 박 선생

은 당내 비주류계의 핵심인 박지원 전 원

문 대표는 앞서 광주시 구의회 의장단과

의 조찬 간담회에서 "광주 분들이 단합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는데 거의 다 정상화됐

다"며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문제만 남

았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도와달라"고

/임동욱기자 tuim@

내대표의 선친이다.

말했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의원을 포함해 정 전 의원과 연대를 한 몇명 정도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 북지역 정치권의 예측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천 의원의 독자세력 화 움직임과 시기가 겹치면서 호남 전역으 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할 수도 있다고 보는 관측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 당 창당 과정이나, 내년 총선에서 두 사람 이 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그러나 양측은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 다.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서 두르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

천 의원은 "정 전 의원과도 얼마든지 만 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를 얘기할 때가 아 니다"라며 "새로운 인물과 비전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는 "정 전 의 원의 총선 출마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것 으로 안다. (천 의원과 연대론 등은) 너무 이른 얘기"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새정치연합 내에서 도 일부 인사들의 탈당설이 잦아들지 않고

최근 비노(비노무현)그룹 의원 모임인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신당론에 대한 얘기가 진지하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노계 중진인 박주선 의원은 "일단 당의 혁신이 최우선"이라면서도 "제대로 혁신되 지 못하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얘기하 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일부 세력이 이탈할 경우 천 의원 등 외부 세력과 결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새누리당내 친박(친박근

혜)과 비박(비박근혜) 세력 간 갈등이 심 화하면서 야당 비노 세력과 여당 비박 세 력이 연대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도 일부서 흘러나온다.

천 의원도 최근 "온건한 진보 노선이 적 절하다. 개혁 의지만 확고하다면 보수세력 과도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해 '중도개혁 신당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10월 기초단체장·기초의 원 재보선 결과가 야당 내 정계개편의 분 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당 추진 세력이 호남 재보선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 창당 논의는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치연합 혁신위는 최근 내놓은 쇄신안에서 재보선의 원인을 자당이 제공 한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호남지역 재 보선은 '무주공산'이 될 수 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국회 교문위원장 박주선·산업위원장 노영민

#### 오늘 본회의서 선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 업통상자원위원장이 6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교체된다.

신임 교문위원장으로는 박주선 의원 이, 산업위원장에는 노영민 의원이 내정 됐다.

국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인 정보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지만 야 당 몫 위원장의 경우 당내 조율이 늦어 져 이번에 선출하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19대 국회 하반기 교문 위원장과 산업위원장 자리를 두고 3선 의원들 간의 조율이 안 되자 이례적으로 경쟁자들이 1년씩 번갈아 위원장 직을





박주선 의원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훈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지난해 먼저 교문위원장과 산업위원장 을 각각 맡았다.

하지만, 산업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1년 임기를 명확하게 약속한 바 없다며 한때 사퇴를 거부해 혼선이 빚어졌으나 이종걸 원내대표의 중재로 해결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서울·평양 공동 역사·문화 유네스코 등재 등

### 포괄적 대북제안 조만간 발표할 것"

#### 박원순 시장 광주 강연서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메르스 때문에 발표하지 못한 대북 포괄적 제안 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

박 시장은 이날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남도전통문화연구소 주최 고 한창기 선 생 추모강연회에서 '한창기란 사람은 누 구인가?'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메르스 오기 전, 포괄적 대 북제안을 할 생각이었으나 메르스 사태 때문에 발표하지 못했다"며 "평양과 서 울시가 함께 역사·문화 유산의 유네스 코 등재에 나서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대북관계가 뚫 려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조



만간 정리해 발표 하겠다"고 덧붙였

그는 메르스 관련 서울시 차원의 대 응에 대해서는 "희 망제작소 산하 재

난연구소 운영을 뒷받침하며 축적한 재난 정보가 영향을 끼쳤다"며 "재난 은 초기 대응 속도와 강도가 중요하다 는 원칙에 따라 실행한 것밖에 없다" 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한창기 선생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절 '뿌리깊은 나 무'와 '샘이 깊은 물' 잡지 발행 당시 법 률고문과 한 선생의 유언집행인으로 활동한 인연으로 가깝게 지냈다"고 소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도 우당처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찾아 이 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이 원내대표의 조부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삶을 조명하는 전시회를 둘러본 뒤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의 상징인 중절모를 쓰고 활짝 웃고 있다

## 정부 22조 추경 편성… 메르스·가뭄 대책 6조2000억

해 극복과 경기 살리기에 올해 11조8000 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 함해 총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 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 회에 제출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목표한 대로 오는 20 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돈 풀기를 시작해 경기 진작에 나 설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이 경기부양을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 위한 추경을 반대하고 꼼꼼한 검토를 벼르 고 있어 여권의 예상 일정대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구다.

정부의 추경안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 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 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로 구성됐다. 정부 는 이와 함께 기금 지출 증액(3조1000억 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 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 원(4조5000억원)을 추진한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추경과 기금 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14조 9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이 없었지만 46조원 이상의 거시정책 패키지가 동원됐던 지난해보다 재정보강 규모가 오히려 10조원 이상 늘어 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시정책 패키지 중 올해 기준의 재정보강 규모는 12조원으 로 올해가 지난해의 2배 수준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조충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 회장 재선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 난 3일 서울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에 서 '공동 회장단 회의'를 열고 2차년도 를 이끌어갈 신임 대표회장에 조충훈 순 천시장을 재선임했다.

조충훈 대표회장은 1차년도에 이어 2 차년도 대표 회장에 연임함으로써 전국 협의회를 더욱 연속성 있게 이끌어갈 수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형 개 헌안 제시와 범국민운동 집중 전개, '중 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2016 총



선 의제 선정과 공약 화 촉구 등 실천적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총 력을 다 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대표회장은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 치 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한 2차 년도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A STANFOLD WAY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VIP	1,320 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THE RESIDENCE OF THE PARTY OF T

###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 062)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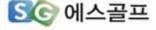
지사 부산(경남.부산지역) 051) 916 -9700 경 남 (경남.부산지역) 051) 916 - 7070 대 전 (충남,대전지역) 042) 320 - 7800 대 구 (경북.대구지역) 053 ) 248 - 6666 울 산 (경남.부산지역) 052) 260 -4575

### Famile co





★VAT포함 금액입니다.







http://tp.kaltour.com

http://www.bookingmall.co.kr

검색창에 부킹몰 🕶 을 치세요.